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기업가치제고” 국제 심포지움 결과

- I. **행사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상생의 관점(Enhancing Corporate Value through CSR and SRI: UN Global Compact Principles and Win-Win Perspectives)” 심포지움
- II. **일시:** 2010년 10월 8일 (금) 09:00~18:00
- III. **장소:** 소공동 Lotte Hotel 사파이어 볼룸 (3층)
- IV.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V. **후원:** 지식경제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업) 홈플러스, SK
- VI. **참석자:** 정부, 기업, NGO, 학계 등 200여명
- VII. **참여 연사:** 30여명
- VIII. **내용:**

개회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승한 회장 (홈플러스 회장)

한국은 반세기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부상하여 G20의 중요 일원이 되었음.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열리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서밋 에서는 4대 의제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다룰 예정인 바, 이 심포지움은 G20의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더불어 한국을 동아시아 사회책임 투자의 허브로 부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사회책임투자의 이름으로 운용되는 자산 규모는 9천조원이고, 총 800여개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UNPRI는 20조 달러의 투자 가동력을 갖추고 있음. 한국의 경우 사회책임투자가 급격한 성장을 보이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는 동전의 양면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임. 이러한 동향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한국을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의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기 바람.



격려사: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이제 기업의 역할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 제공을 넘어, 친환경, 투명경영, 약자보호 등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기업은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 외에도 사회를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음.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시대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 자발활동인 글로벌콤팩트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및 그 이행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준비 또한 부족한 상황임. 이 심포지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기를 희망함.

Session 1-1: 유엔글로벌콤팩트와 기업 가치 제고

주제발표: “글로벌리 운동을 통한 UNGC 4대 영역 실천”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한국철도공사는 업무혁신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와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리 코레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섬세한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을 인식, 여성선발비율을 두고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UNGC 4대 분야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임 할인, 친환경 교통 수단인 열차타기 운동 추진, 부패근절을 위한 Clean-Call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합리적인 노경관계를 위해 원칙을 중시하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2010년 5월 단체협약 타결에 이르렀음.

패널토의: UNGC/CSR의 증대 추세를 주목하고 지속적 노력으로 CSR 이행 결과를 시장에서의 가치제고 성과에 반영해야 함.

Session 1-2: ISO 26000의 출범과 기업의 경영의 영향

주제발표: “ISO 26000의 출범과 기업에의 영향” (한국표준협회 최갑홍 회장)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 기술 장벽을 무너뜨릴 방안이 모색됨. 기업은 ‘가격’과 ‘품질’을 넘어 ‘브랜드이미지’와 더불어 윤리, 환경 및 조직 사회에 대한 다양한 stakeholder들에게 공헌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이는 새로운 사회 구조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



ISO26000은 표준화 기관에서 만든 기준으로 '인권, 노동, 환경, 공정관행, 소비자 이슈, 조직의 거버넌스, 사회적 기업' 등의 7가지 가치를 반영하는데 거래의 룰을 바꾸는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음.

패널토의: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의 문제와 공정한 관계 형성의 고취가 세계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임.

Session 2: 인권경영과 윤리경영

주제발표 1: "UN Global Compact : Human Rights – is it any of your business?"
(Peter Brew, 아태지역 소장, IBLF)

인권은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이지만 기업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 급료 문제뿐 아니라 근무환경, 보상제도, 집회의 자유, 교섭권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음. 광물이나 석유 자원 부문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수익창출로 연결됨.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안게 되는 영향, 해결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임. 경제, 산업, 환경, 윤리에 관련된 사안들도 균형 맞춰 고려해야 함.

주제발표 2: "청렴윤리경영 실천" (한국서부발전 정성진 감사)

한국 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 고객에 대한 책임,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실천. 실천체계로서는 윤리 행동규범을 제정 및 시행하고 윤리경영 책임자를 선정하여 워크샵 진행 등을 하고 있음. 협력사와의 청렴네트워크를 위해 노력. 2016년 이후 윤리방면의 선두가 될 예정임. 소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중요함.

윤리경영 실천의지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협력회사 방문 및 초청순회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충 해결. 청렴도 조사에서 99.5점을 기록함. 다문화 가족 지원, 주왕산 가꾸기, 사랑의 집짓기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있음.

패널토의: CSR은 단순한 자선활동을 넘어서야 함. 법규준수와 윤리경영이 진정한 해결책이며 약속이행을 통한 책임감이 필요함.

Session 3-1: 지속가능경영과 녹색경영

주제발표 : "Global Posco: Through Greener SCM" (이경훈 포스코 상무)



포스코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함. 현재 환경경영 지원, 녹색기술 협력, 녹색구매로 구성된 Greener SCM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녹색상생 협력을 시행중. 향후 상생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 또한 정부,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생협력 추진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것임.

주제발표 : "Homeplus의 녹색경영 이야기" (홈플러스 설도원 전무)

홈플러스는 시장가치인 '성장'과 사회가치인 '기여'라는 존경 받는 두 기업의 얼굴을 하나의 큰 바위 얼굴로 만들겠다는 '큰 바위 얼굴 경영'을 추진함. 또한 친환경 점포 만들기, 친환경 프로세스, 어린이 환경운동, 친환경 소비생활, 환경경영시스템, 친환경 네트워크 등의 그린가치를 추구함.

패널토의: 사회와 경제가 골고루 발전하려면 미래 trend 2010 등에서 언급하는 지속가능한 장수 기업의 특징인 높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Session 3-2: 국내 탄소크레딧 제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소 상생

주제발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소 상생 - 국내 탄소크레딧 제도"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국내 대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에 비해 자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감축잠재량은 크지 않을 것. 또한 중소기업들은 정보, 인력, 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대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공급사슬 전체의 경쟁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본의 JCDM과 같은 탄소감축 상생 협력을 촉진 하는 대·중·소 상생을 통한 연계전략이 필수임.

패널토의: 에너지 효율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경영개선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으며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Session 4: 한국의 금융허브와 사회책임투자의 국내외 동향

주제발표: Leon Kamhi, Executive Director, 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

분석, 창출될 가치와 관련된 환경과 사회적 이슈는 한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탄소배출 세계 9위 등 한국은 조금 더 매력적일 필요가 있음. 유엔 글로벌콤팩트 원칙 발표 후 금융업에서 ESG & SRI의 역할을 크게 보고 있으며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특히 환경, 사회 이슈가 투자 결정뿐 아니라 사회적 리스크와 관련하여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지금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 장기적 안목에서 이득을 바라 볼 수 있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함. 이러한 경우 한국의 금융산업, 사회 투자 산업의 큰 발전이 있을 것임.

패널토의: 기존 분야의 투자를 뛰어 넘어 안정적이고 risk가 적은 분야를 개척하고 투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Green environment 분야에만 지나치게 투자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가 인증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함. 국민연금 등 국내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음.

Session 5: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및 그 발전 방향

주제 발표: "연기금의 책임투자과 그 발전 방향"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책임투자과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함. 윤리 투자는 특정한 가치체계에 맞는 종목들을 가려 내는데 스크리닝 과정에서 우수 기업들이 탈락될 위험이 있음. 책임투자는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투자에 추가적으로 반영함. TRUCOST사는 전체산업을 464개로 분류하여 산업별로 매출액과 Sector 별로 분석하였는데, 각 기업에서 700가지 이상의 환경물질이 배출됨을 보임.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에 대해 용인하지 않음. 평가기간의 장기화, ESG 분석에 대한 인프라 투자 설비,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함.

패널토의: 비재무적 이익이 수치화 될 수 있다면 법리적 운용도 가능 할 것임. 비재무적 이익에 대한 주주들과 국민들의 납득을 위해 장기적 운용에 필요함.

IX. 의의

1. G20 정상회의 및 G20 비즈니스 서밋을 앞두고, UN Global Compact/CSR 가치와 사회책임투자 및 상생 이슈의 연계 토의를 통해 한층 높아진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제공하였음.
2. G20/비즈니스 서밋 개최 전에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CSR/지속가능성 등



G20 비즈니스 서밋 의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진하였음.

3. ISO26000, 상생 등 최신 중요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끌어 냄.
4. 향후 한국중심의 CSR의 지속적 토의의 기반을 마련함.
5. 행사의 내용의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우리 국민의 사회책임인식을 제고함.
6.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업지속가능성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유엔글로벌콤팩트 원칙과 ISO26000 핵심 주제의 연계에 대한 소개', '뉴욕 선언문' 등 중요 자료가 배부되었음.

끝